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참 고 자 료	정부혁신 보다나은 정부

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배포일시	2019. 5. 24. (금)	담당부서	세계무역기구과 다자통상협력과
담당과장	정경록 과장(044-203-5920) 권혜진 과장(044-203-5930)	담 당 자	김애경 사무관(044-203-5923) 정은지 사무관(044-203-5935)

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, OECD 각료이사회 및 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 등 참석 (5.22~23, 프랑스 파리)

□ **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**은 5.22(수)~23(목)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**OECD 각료이사회와 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**에 참석, **OECD 각료이사회 부의장국**으로서 **논의를 주도**하면서, **WTO 개혁 논의에도 적극적**으로 **참여하였다.**

<< WTO 통상장관회의 >>

□ OECD 각료이사회 계기에 ❶**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**, ❷**오타와그룹 장관회의***가 개최되어 **WTO 개혁 이슈를**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.

* 우리나라, 加, EU, 日, 싱, 호, 뉴질, 브라질, 칠레, 케냐, 노르웨이, 스위스, 멕시코

□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WTO 개혁 논의 계기 「**WTO 일본산 수입식품 분쟁」 결과에 대한 일본 측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문제제기**에 대해, **적법절차**를 거쳐 **최종 판결**이 **내려진 사안**을 **WTO 상소기구 개혁**과 **연계하는 것은 부적절하며, 日측은 상소기구의 최종 판정결과를 존중해야 함을 거듭 지적**하였다.

① **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**에서는 수산보조금 협상 타결 방안과 2020년 6월 예정된 제12차 WTO 각료회의(MC-12)에서의 성과도출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.

○ 유명희 본부장은 수산보조금 협상의 실질적인 진전 필요성을 강조하고, 이를 위해 다수의 국가들이 공감대가 형성된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합의하자고 제안하였으며, 문안작업의 착수를 촉구하였다.

○ 또한, WTO 개혁방안으로서 투명성 강화, 복수국간 협정 가능 분야 발굴을 통해 WTO 기능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여 각료선언을 채택할 것을 촉구하였다.

② **오타와 장관회의**에서는 WTO 정례회의 기능 개선 방안, 개발 관련 이슈, APEC 및 G20 계기 WTO 개혁 논의 동향 등을 집중 토론하였다. 또한, '20년 카자흐스탄 누르술탄에서 개최되는 제12차 WTO 각료회의(MC-12)에서의 성과에 대해서도 논의되었다.

○ 유명희 본부장은 현재의 WTO가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회원국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회원국들이 WTO 협정상의 통보 의무 등을 더욱 충실히 이행해야 함을 강조하였다.

<< OECD 각료이사회 >>

□ 유명희 본부장은 **"디지털 시대 무역의 혜택 실현 및 다각화"**를 의제로 하는 무역·투자 세션에 선도발언자로 참석하여, 디지털 시대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혁신 및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등을 통한 **포용적 디지털 생태계 구축 방안을 제시**하는 한편,

○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과 사생활 보호 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**국제규범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**하였다.

< OECD 각료이사회 개요 >

□ (일시/장소) '19.5.22(수)-23(목), OECD 본부 컨퍼런스 센터 및 샤토

□ (전체주제)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디지털 변혁의 이용 : 기회 및 도전요인
(Harnessing Digital Transi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: Opportunities and Challenges)

□ (프로그램) 무역·투자 세션 등 4개 세션, 오타와그룹 장관회의, 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 및 WTO 서비스 국내규제회의 등 OECD 계기 각료회의

<< 양자면담 >>

□ 한편, 통상교섭본부장은 동 계기에 브라질 아라우주 외교장관 및 터키 펙잔 무역부 장관 등과 만나 양자면담을 진행하였다.

○ (브라질 아라우주 외교장관) 양국은 한-브라질 수교 60주년을 경축하고, 한-메르코수르 FTA 조기 타결을 위해 협상의 신속한 진전 필요성에 공감하며, 투자확대·인프라 진출 등 양국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.

○ (터키 펙잔 무역부 장관) PET 양자 세이프가드 철회, 한국산 섬유에 대한 엄격한 원산지 검증 요구 완화, 對한 무역구제조치 증가 등 우리기업 애로 및 우려사항을 전달하였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세계무역기구과 김애경사무관(☎ 044-203-5923), 다자통상협력과 정은지 사무관(☎ 044-203-593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